

\* 춤전용극장 두리춤터 공연  
2019 신진국악실험무대 “청춘대로 덩더쿵”

## 음기(陰氣)로 가득 찬 기운생동을 품은 안무가와 작곡가의 협업

오정윤 안무 <無\_默嘿燻蠟>

박 지 선 (인문예술가)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 두리춤터가 주관하는 <청춘대로 덩더쿵>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전통에 기반 한 춤을 재발견하기 위해, 약 5개월 간 우수한 신진안무가들을 다각적으로 지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은 6인의 안무가들과 6인의 음악가들을 매칭하여 협업을 이뤄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2019년 11월 26일 젊은 안무가 오정윤(서울시무용단)과 음악가 김현섭(코리악밴드)의 협업, <無\_默嘿燻蠟>를 보기 위해 두리춤터로 향했다.

두리춤터 Black box 극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소극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널찍이 개방된 공간이 시야에 펼쳐진다. 호리존트와 등퇴장 막들을 모두 걷어내고 골조를 훤히 드러낸 두리춤터 극장은 이날 유독 날 것의 냄새를 풍겼다.

거칠게 구겨져 있는 전지들은 조형물처럼 무대 테두리 전체를 에워싸고 음울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잔인하리만치 희디 흰 세상 속에는 댄서 두 명이 전시되어 있다. 퍼포먼스, 행위예술을 위한 거대한 판을 극장에 옮겨 엮어 놓은 듯 했다.

관객석에 자리 잡기 위해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만들어진다. 객석에 자리잡기 위한 목적성만을 띤 걸음이 한발 한발 내딛을 때마다 공연의 일부인양 의미가 생겨난다. (숨 쉬는 것처럼 새로운 의미 없이도 진행되던 것들에) 생명력이 부여되는 순간이다. 그 찰나의 소리는 연극적 요소로 생기가 불러일으켜 진다. 본격적인 공연의 시작 이전부터 공연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시각적 자극으로 그치지 않고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관객을 공연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으리라. 여느때와 다른 생경한 두리춤터 극장에서 펼쳐질 오정윤과 김현섭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공연은 시작되었지만 관객석 조명까지 환희 밝혀진 그대로였다. 무대와 객석이 열린 공간으로 있다. 하얀 세상 속에 하얀 의상의 댄서들은 커다란 함의를 품은 것만 같은 거친 나무상자 속 사과와 함께 불규칙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무대를 에워 쌓고 있는 바스락 거리는 구겨진 종이처럼 댄서들이 입은 하의도 바스락 거리며, 무용수들은 하얀 버선발로 딛고 있는 무대의 일부인 양 연결되어 있었다.

등퇴장이 없는 열린 무대 공간 때문에 무용수들과 악사들은 특별한 ‘쉽’이 없었다. 무용수와 악사들은 작품의 흐름과 연계되어 한 순간도 흐트러짐이 없다. 한 호흡으로 존재하는 모습이 우주의 운행과도 같게 느껴졌다. 춤을 추고 있지 않아도 춤에 임하고, 연주하고 있지 않아도 연주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랄까. 한국의 전통적 미학인 ‘정중동’이 실현되는 듯했다.

이들은 ‘소리 없는 움직임’, ‘소리 없는 음악’이 최상의 춤이자 음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움직임 없는 움직임, 소리없는 소리라. 모순되지만 또 완전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그래서

우리 것에 '정중동(靜中動)의 미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정중동은 고요함 속에 동적에너지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참된 고요함이라는 뜻이다. 즉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것으로 내부에 응축된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고수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한국적인 멋이 깃들여 있다.

무용수들은 작은 몸짓으로 시작해 조금씩 확장되는 움직임으로 무대를 메워갔다. 김대현, 권영성, 김민정, 양인화, 이혜진의 기운은 오정운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오정운 특유의 집중력은 정적일 때조차 기운을 뿜어냈다. 모든 것이 얼음처럼 멈춰버린 정지상태를 무대에 들여놓지 않는 그의 노력은 오정운만의 카리스마가 되어 공간에 퍼져들고, 관객의 눈과 마음에 스며들었다.

귀를 만지고 손을 씻어내는 행위의 나열—때로는 가래를 뱉어내듯 소리를 뱉어내기도 하고, 몸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무언가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쓰기도 하는 동작—은 뱉어낸 말들이 왜곡되어 되돌아와 이를 떨궈내려는 몸짓이다. 말은 전달되며 변형되고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꽤나 다른 말로 남겨지기 때문에 무대를 구겨진 종이로 가득 채우고, 종이를 구기는 행위로 말을 전달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한다. 무심코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화살이 되어 꽂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듀엣에서는 문제의 사과를 둔 갈등을 다뤘다. 항쟁의 끝에 결국 사과는 먹혀버리고 만다. 이것은 해소일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까? 사과를 베어무는 소리가 침묵의 공간을 생채기 냈다. 트리오 구성에서는 말이 낳는 모습과 파생된 말이 독이 되는 모습들을 무언극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갈등을 초래하는 삼각관계의 춤으로 말이 옮겨 다니며 나비효과를 일으킨다. 이처럼 말이 퍼져나가는 형상을 나타내기를 기호화된 몸짓으로 함축시켜 표현하기도 하고, 곡선과 꼬여지는 반복적인 움직임의 확장과 무대구성은 음악의 고조와 함께 작품을 격정으로 몰고 갔다.

한 마디로 오정운과 김현섭은 공연시간 동안 자신들의 무대를 위해 '열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준다. 어느 한 곳에 의지하지 않고 쉽 없이 각자의 예술장르에 몰입하여 한 톤으로 합을 이룬다. 보통 무용음악이라고 하면 안무와 무용수의 움직임에 맞춰가는 것이 보통인데, 작곡가 김현섭은 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보기 좋게 깨버린다.

밴드는 상수 뒤편에 자리 잡았다. 극장 건물의 독특한 프레임과 어우러지는 밴드의 구도적 배치는 시종 관객을 사로잡았다. 작곡가 김현섭은 관객석에 등을 지고 앉아 피아노를 친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침묵이라 여긴다. 그러나 침묵을 깨고 소리를 냈다는 것은 한음, 한음에 대한 책임감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지향에 도달할 때까지 애쓰는 모습이 그대로 전해졌다. 꼭 국악기가 아니더라도 산조, 당악, 중모리 등 전통장단을 입혀 한국 전통음악의 접근성을 높였다. 김현섭은 밴드 단원들과 소통을 이뤄내기를 진두지휘하며 꼭 무용을 뒷받침하는 음악이 아니더라도, 오롯한 음악 그 자체로 분위기를 압도한다. 피아노를 치다가 왼 손으로 지휘를 하며 곡을 이끌어어나가는 몸짓은 손색없는 춤 그 자체였다. 작곡가 김현섭이 음악을 통솔해 가는 모습에 매료된 사람은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無\_默嘿燻蠟>은 '음기(陰氣)로 가득 찬 기운생동(氣韻生動)'의 미학을 품고 있다. 기운생동이라 하면 약동(躍動)이 연상되며, 그 활발성은 양기(陽氣)와 어울린다. 하지만 <無\_默嘿燻蠟>의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오정운의 춤과 김현섭의 음악은 어둡고 비밀스러우며 신비스러운 음기로 가득했다. '침묵'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고요하고 정적이다. 그들의 기운은 대지로 향했다. 드넓은 대지 기저에서 한 줄기 양기를 뿜아내기 위해 애쓰고 애쓰는 기운이 생동하는 춤,

그리고 음악은 나비효과로 되돌아와 무대와 객석을 가득 메웠다.

신진국악실험무대 <청춘대로 덩더쿵>은 차세대 한국 공연예술을 이끌어갈 인재 발굴·육성 프로젝트이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공연 장르의 융복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문화 제대로 알리기'를 시도한다. 전통에만 매여있지 않고, 새로움에 집착하여 불통을 야기시키지도 않는 그 사이 어딘가는 늘 어렵다. 쉽지 않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가 꼭 이뤄내야만 하는 일들에 도전하는 두리춤터의 행보를 응원한다.